

TiN 를 확산방지막으로 이용한 Al/Si 과 Cu/Si 사이의 반응에 대한 비교

박 기철, 김 기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I. 서론

집적회로에서 소자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배선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Al 도는 Al 합금은 빠른 소자 제조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Al보다 비저항이 작은 재료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현재 Al을 대체할 차세대 배선재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Cu이다. [1] 하지만 Cu를 배선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Cu와 Si 사이의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N 를 확산방지막으로 이용하여 Cu와 Si 그리고 Al과 Si 사이의 반응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TiN의 "stuffing"이 각각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II. 실험방법

6" Si(100) wafer 위에 reactive sputtering 법으로 900 Å의 TiN 박막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TiN를 450°C의 질소분위기에서 30분동안 열처리함으로써 "stuffing"을 시켰다. Non-stuffed TiN 박막과 stuffed TiN 박막 위에 magnetron sputtering 법으로 3000 Å의 Al과 Cu를 증착하였다. Al과 Cu의 증착시 sputtering 압력은 2 mTorr, 기판은 수냉시켰다. 증착된 시편을 450-650°C의 수소 분위기에서 50°C 간격으로 1시간동안 열처리 하였다. 열처리 전과 후의 시편을 four point probe, Socco etching, x-ray diffractometry(XRD),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실험결과 요약

XRD 분석과 TEM 분석을 통해 Al과 non-stuffed TiN은 550°C, 1시간의 열처리 후에 반응하여 TiAl₃와 AlN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으며, [2] Cu와 non-stuffed TiN은 650°C, 1시간의 열처리 후에도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l/non-stuffed TiN/Si 시편의 경우에는 그림 1에서 보듯이 Al의 in-diffusion으로 인한 Al spikes의 형성과 Si의 out-diffusion으로 인한 Si-pit의 형성이 TiN 확산방지막의 파괴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u/non-stuffed TiN/Si 시편의 경우에는 Si의 out-diffusion은 거의 없으며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은 Cu의 in-diffusion으로 인한 결합의 형성이 TiN 확산방지막의 파괴기구라는 것을 단면 TEM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Al의 경우에는 TiN 박막의 "stuffing"이 확산방지막으로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Cu의 경우에는 거의 "stuffing"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참고문헌

- [1] 황 기웅, "0.1 μm 기술에 관한 연구 제안"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 p. 231 (1993)
- [2] M. Wittmer, "Interfacial Reactions between Aluminium and Transition-metal Nitride and Carbide Films", J. Appl. Phys. 53, 1007 (1982)